충청일보

팀플은 원풀이다!

충청일보 | 승인 2026.11.03 16:37

[교육의 눈] 노기섭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



필자는 두 곳의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센터에는 여러 팀이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정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을 만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누가 단번에 해답을 내놓느냐가 아니다. 김00 팀장과 오00, 한00, 이00 팀원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막막했던 일을 함께 해결해 내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감동과 희열을 느낀다.

누군가는 문제의 원인을 짚고, 누군가는 놓친 조건을 찾아낸다. 다른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제안한다.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고치면서 해결책은 조금씩 구체화 된다. 센터장이라는 자리에서 나는 사람을 통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듭 배운다.

인공지능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도 이 장면은 여전히 소중하다. AI는 자료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행의 일부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 서로 다른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는 사람과 조직의 몫이다. 좋은 답을 얻는 능력만큼 그 답을 함께 실행할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팀플(팀 플레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팀플은 다른 생각과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약속을 정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공동의 결과에 책임지는 연습이어야 한다. 능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받는 사회일수록 다른 사람의 역량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들이 팀플을 반기지 않는 이유도 이해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팀원, 일부에게 몰리는 업무, 기여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점수는 함께 일하는 경험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어떤 학생은 묻는다. "AI 에이전트와 소통하면서 일하면 되지 않나요?" 충분히 나올 법한 질문이다. 필요한 순간에 응답하고 여러 번 수정을 요청해도 되는 AI와 일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은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배움이다.

팀플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내 몫을 빨리 끝내는 요령만이 아니다. 동료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묻는 태도, 반대 의견의 이유를 듣는 인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잘못된 약속은 바로잡고, 책임은 분명히 하되, 어려움을 혼자 떠안게 두지 않는 경험이다. 공감은 책임을 흐리는 일이 아니며, 협업은 능력 있는 한 사람에게 기대는 일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팀플을 권할 것이다.

팀플은 원풀이다! 함께하기에 가능해지는 '원더풀 플레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혼자서는 찾지 못했던 길을 열고, 어려움을 함께 넘으며 동료의 소중함을 배운다. 대학에서 만나는 팀플이 그런 경험으로 남기를 바란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